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추석 연휴 전날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명절 연휴 전날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015~2017년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밝혔다.

분석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은 교통사고 758.7건, 사상자 1131명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교통사고 471.2건, 사상자 852.7

경찰청,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분석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알람·화상순찰 등 예정

전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일평균 사고는 교통사고 14.7건, 사상자 41.7건으로 평소 주말(13.8건, 39.1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3.9건), 서해안선(1.7건), 영동선(1.5건)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정오~오후 2시(2.8건), 오후 2~4시(2.3건), 오전 10시~정오(2.1건) 순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 졸음운전의 경우 추석 당일(8건)과 연휴 전날(6건), 추석 다음날(4건)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시간대

별로는 오후 4~6시(1건), 오후 2~4시(0.8건), 정오~오후 2시(0.6건) 등 주로 낮 시간대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일람순찰'과 화상순찰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며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는 양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해 양행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호주시드니 호텔에서 화학물질 유출 8명 부상

호주 시드니 소재 고급호텔에서 19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다른 24명은 현장 치료를 받았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뉴스우스 웨일스 주 구급서비스 대변인은 이날 아침 풀먼 시드니 하이 드 파크 호텔에서 화학가스 누출로 상당수의 투숙객이 눈이 따갑거나 호흡부진 등 증세를 일으키면서 입원하거나 응급처치를 했다고 전했다.

처음 사고가 나자 투숙객들이 크게 당황하는 소동을 빚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들은 안정 상태에 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호텔 20~22층에서 오전 9시에 강력한 악취가 풍기자 신고를 받고 소방차 4대와 소방관 16명이 현장으로 즉각 출동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수영장이 있는 층에서 발생했으며 소독을 위해 염소와 염화수소산 등 화학물질을 섞어 뿌리는 작업을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독가스 연기가 피어올라 환기장치를 통해 건물 곳곳으로 퍼졌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직후 행인과 차량의 호텔 주변 진입을 차단했다.

美 상어공격 2명 사상...휴대전화 불통 논란

미국 매사추세츠주 코드 콧(Cape Cod)은 100여년 전 이탈리아의 발명가 구굴리엘모 마르코니가 처음으로 무선 장거리 전화를 걸었던 곳으로 유명한 해변 명승지이다.

하지만 이 번 여름 두 번이나 발생한 대형 백상어의 공격으로 이 곳에서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인명사고가 났고 다른 한 명도 상어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 관광지 해변에 백상어가 크게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상어 마리 수의 증가 속도에 못미치는 휴대전화 신호의 소용이었다.

8월 15일 트루로의 한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백상어 공격과 지난 주말 웰플리트의 뉴콤 홀로우 비치에서의 사망사고는 모두 휴대전화 불통 때문에 신고와 구조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한 탓이었다.

지난 달 상어에 공격당한 뉴욕에서 온 빌 리턴(61)은 해수욕을 나온 주민들 몇 명이 모래시장을 달려서 주차장의 차량에 있는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했지만, 통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리턴은 어떻게 구조되어 지금은 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코드 콧의 다른 해수욕장에서 숨진 아서 메디저(26)의 경우에는 맨 처음 911에 구조요청 신고를 한 사람이 통화가 자주 끊기는 등 비상전화 수신요원과 통화의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신고와 출동이 많이 늦어졌다. 녹취록 확인 결과 이 신고 전화는 자주 끊기다가 나중에 아예 먹통이 되어 버렸다.

지방 구조대는 신고후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메디저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숨지고 말았다. 병원에서 사망선고된 시신은 19일 간단장례식을 거행한 뒤 원래 고향인 브라질로 후송된다.

이 지역에서는 전부터 통신장애가 심해 지방 관리들은 특히 외진 해변과 사람들로 붐비는 해수욕장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통신탑 건설을 추진 해왔다. 통신 중계탑 건설외에도 비상전화용 공공전화 박스 신설, 심지어 옛날 구식의 학교 구내 유료 공공전화 시설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폭우로 100명 사망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수 일 간의 폭우로 100명이 사망했다고 18일 재해 당국이 말했다.

사망자는 10개 주에서 발생했으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비상사태관리청이 AP 통신에 밝혔다. 수자원 및 기상 당국은 계속된 비로 강 등의 수위가 대참사가 난 2012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6년 전 폭우와 홍수로 363명이 사망하고 210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했다.

이들 관계 당국은 36개 주 중 12개 주가 심각한 홍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60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들은 니제르강 유역이다. 나이지리아 북서쪽의 카베론이 라그브 댐을 열어 방류할 경우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나이지리아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라틴아메리카 대륙과 마주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근해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해 북서진의 대정점에 나선다. 허리케인은 카리브해를 거쳐 멕시코만으로 구부러지거나 북미 대륙 근해로 올라간다.

뉴스스

광주 모 여고 교사들

성희롱·폭언 의혹

광주 한 여고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청이 진수조사에 나섰다.

19일 광주 관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 모 여고 교사들이 성(性) 관련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까지 전교생 95여 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언어 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개인별 상담을 통해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학생들 SNS서 피해 사례

공론화·상담·진수 조사

이 학교 학생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O O미부'라는 계정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 계정에서 "위안부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매매를 옹호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언어 폭력도 심했다"며 특정 교사들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제를 제기하자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시교육청은 학생들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진수 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들을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오늘은 목탁대신 응원봉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2018년 조계종 학인 염불시연대회에서 스님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교과서 속의 성차별...직업·외모 등 '성별 고정관념'

온라인 공모 '바꾸면 쓸모 있는 성평등 교과서' 결과

국민들이 뽑은 교육자료의 성차별 표현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역할, 직업, 외모 등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교과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공모 '바꾸면 쓸모 있는 성평등 교과서'를 진행하고 19일 결과를 공개했다.

공모는 국민들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 유아용 교재 등 각종 교육자료에서 찾은 성차별 표현과 이를 성평등하게 바꾼 표현을 댓글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

다. 총 89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별 고정관념'이 614건(68.7%)으로 가장 많았다. 국어 교과서에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 실과 교과서에 자녀를 돌보거나 식사 준비하는 일을 여성만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 과학자·의사는 남자, 기사캐스터·간호사는 여자로만 그려져 있는 것 등 성별에 따라 특성과 역할, 직업 등을 구분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립운동가 등 역사적 위인을 소개할 때 여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남성 위인의 조력자로만 소개하는 것, 교과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

련 내용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위주로 설명돼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280건(31.3%)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접수된 국민 제안 주요 사례를 앞으로 '양성평등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청소년용 성평등 교육자료 보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전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자료의 성차별 표현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